

밥값 안내던 中 부패관리들 이젠 돈내고 먹어야

'3공 경비' 예산 9조원 감소... 지난해 비해 27.5% 줄어 접대비용 식당주인에 대납시킨 공무원 등 6만여명 적발

중국 공무원의 대표적 특혜로 꼽히는 '3공(三公) 경비' 예산이 이른바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 기간에 530억 위안(약 9조 2336억 원) 감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3공 경비'는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3가지를 뜻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6월 베이

징에서 열린 제1차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에 참석,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이른바 '사풍'(四风)으로 규정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절약운동과 반(反)부패 운동을 전개해왔다. 중국 공산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달까지 '3공 경비'가 530억 2000만 위안 감소해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 시작 전에 집계된 '3공 경비'

예산과 비교하면 2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무 해외출장이 2만 7000여건 감소하고, 관용차가 11만 9000여 대 퇴출당했다. 중국 공산당은 또 전국적으로 공무원회가 58만 6000건(24.6%), 공무원건 190만 8000건(26.7%), 표창활동 19만 2000여 건(31.2%) 감소했고, 지도소속 및 의사협조기구 13만 2000개(18.4%), 행정심사비준 항목 13만 7000여 개(13.7%)가 줄었다고 밝혔다. 관저 등 각종 공무원 주택은 2425만 7천여 m²가 정리됐다. 특히 공무원들이 각종 접대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고 식당주인 등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5만여 건(6만여 명) 적발하고, 공공기관이 서민들에게 대한 토지장발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행위를 6499건을 적발해 3968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근무하지 않으면서 각종 급여와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현직 혹은 퇴직 공무원을 뜻하는 '초공상'(曠空餉·유령 공무원) 16만여 명도 '퇴출'됐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발표에서 공무원 10만 명이 5억2000만 위안 상당의 '홍바오'(紅包, '전자 선물 카드' 등을 스스로 상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中 원난성 푸얼시 또다시 지진 강타 사상자 320여명 발생

중국 남부 원난(雲南)성 푸얼시 징구(景谷)현에서 7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320여 명으로 늘었다. 원난성 민정청은 8일 오전 4시까지(현지 시간) 1명이 사망하고 32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하고 주택 붕괴 등 재산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도 포함돼 있어 사망자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과 원난망(雲南網) 등이 이날 전했다. 전날 오후 9시 49분에 발생한 이번 지진에 대해 중국 지진국은 규모 6.6으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 6.0으로 각각 측정했다.

두달 전 강진 덮쳐 600명 사망 여진 계속돼 추가 발생 우려도

중국기관 측정치로는 지난 8월 3일 원난성 자오통(昭通)시 루넨(魯甸)현에서 발생해 6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를 낸 규모 6.5지진에 비해 강도가 세다. 지진의 깊이도 루넨현이 12km인데 비해 징구현은 5km로 이번이 훨씬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앙인 징구지역이 해발 1500m의 비교적 고산지대로 인구밀도가 낮아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진이 발생한 푸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푸얼차' 산지다. 푸얼차의 한국식 발음은 '보이차'다. 지진 발생 직후 중국지진국은 '2급 응급 태세'를 선포했으며 중국 정부는 긴급 구조를 위해 군 병력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구조 노력 등 희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중국 지진국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직후 이날 오전 8시까지 모두 20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집계했다. 원난성 지진예보연구소 푸홍(付紅) 연구원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우량산(無量山) 단열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사흘 안에 규모 5~6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쓰촨(四川)성 아안(雅安)시 루산(蘆山)현에도 이날 오전 5시 14분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루산현에서는 지난해 4월 규모 7.0 강진으로 2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났다. /연합뉴스

아베 日총리 고립 위기 느꼈나... 한·중과 대화 의지 표명

"정상회담 통해 솔직한 대화 원해" 센카쿠 열도 관련 中과 우호 접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앞으로 다양한 국제회의의 기회에(한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발 한발 서로 노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일정상회담이 동년 참석하는 다자 국제회의는 이달 중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내달 베이징(北京)과 네피도(미얀마 수도)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이웃이기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럴수록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 정상끼리를 포함한 솔직한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노력이나 입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계속 설명을 거듭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런 끈질긴 노력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자세에 대해 "관계개선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전략적 호혜관계를 실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한 중일 국방 당국간 협의를 재개한다는데 양측이 최근 합의한데 대해 "(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리샤오린(李少彬) 중국인민대의우협회 회장과 7일 도쿄 도내의 한 공연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고비 넘긴 홍콩 시위 대화 의제 놓고 신경전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8일(현지시간) 정부와 시위대는 대화 의제와 장소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홍콩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4시 캐리 램(林鄭月娥) 정무시장(총리격)과 학생 대표 간 공식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 예비 접촉 실무자인 라우공와(劉江華) 정치개혁·분토사무국 부국장은 대화 장소를 홍콩 정부청사와 가까운 홍콩섬 완차이(灣仔) 부근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언론의 취재는 허용하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 의제로 헌법 개정과 이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위대를 대표하는 학생 측은 자신의 요구 사항인 반중(反中) 성향 인사의 행정장관 후보 출마를 허용하는 '진정한 보통선거'와 '행정장관 후보의 정당 공천' 등이 정부측이 제시한 대화 의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위대의 규모는 8일 오전에도 200~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휴교했던 중시구와 완차이 구 초등학교들도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화학물질 실은 열차 탈선... 주민 대피

7일(현지시간) 캐나다 사스캐atoon 주 와데나 부근에서 위험 화물을 실은 열차가 탈선해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타고 있다. 주정부는 현지 클레어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연합뉴스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男	초혼	女	추천 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재혼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임페리얼 클럽